

경남지역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초등학생들의 식습관, 음식기호도 비교 연구

†이주희 · 정선옥* · 김창임**

경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식품영양과

Comparison of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in Gyeongnam Province

†Joo Hee Lee, Seon Ok Jeong* and Changim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Major of Nutritio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02-715,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long to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The data were obtained by interview based on questionnaire from November to December in 2012. The subject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ordinary families were 99 and 376 children, respectively. In comparison with eating habits, the ordinary children showed higher scoring in the items of eating proteins, green and yellow vegetables, and fruits or fruit juice than those of multi-cultural children. The ordinary children ate less midnight-meals than those of multi-cultural children ($p<0.05$). Furthermore, the ordinary children ate kimchi more frequently than the multi-cultural children. I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on the items of 'eating-out types' dietary habits between two groups. Education of mothers correlated with the ordinary children's eating habits more than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investigation of the food preference to Korean foods, 'beef and radish soup', 'pumpkin porridge', and 'wheat flakes noodles' were more preferred by children of ordinary families than by those of multi-cultural families ($p<0.05$). To conclude, nutritional education for their parents should be done and maintained to keep a right eating habit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even at home.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elementary school children, eating habits, food preference

서 론

2006년 5월 개최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으로의 발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한민족 사회가 아닌 다문화 사회임을 표방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1993년(약 66천 명)에서 2011년 12월(약 14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2).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에는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의 이주외국인뿐 아니라, 결혼이주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으로 이해된다.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이주 후 바로 한국의 문화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편입되는 한국인 가정 내에서 가사 및 식사 준비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식생활

† Corresponding author: Joo Hee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01, Korea. Tel: +82-55-772-1433, Fax: +82-55-772-1439, E-mail: joohlee@gnu.ac.kr

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So & Han 2012).

전국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2011년에는 151,154명, 2012년에는 168,58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도 2011년 10,996명에서 2012년 12,76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 실태분석, 이민 전후 식사패턴 변화 및 건강상태(Cho YA 2010; Hwang 등 2014; Kim & Lee 2009; Kim 등 2009; Lyu JE 2008)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그 이후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식생활 적응요인 및 식행동 연구(Cha 등 2012; Han 등 2011; Lee 2012), 식생활 관련 형태 및 선호음식 양상에 관한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과 비교연구(So & Han, 2012)와 결혼이민여성 과 본국여성과의 식생활 비교(Asano 등 2014) 등이 있었다.

‘2015 청소년통계’(kostat.go.kr 2015) 자료를 보면 2014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806명으로 전체학생의 1%를 넘었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관련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 9,389명에서 7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2014년에는 1만 2000명 이상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70% 이상이 현재 초등학생인 시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올바른 성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제는 결혼이주여성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의 식생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식행동(dietary behavior)이란 개인이 식품을 선택하여 조리 가공하고 섭취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며, 개인의 식행동은 집단 속에서 사회 문화 심리적 영향을 받으면서 반복되어 식습관으로 나타나게 된다(Mo et al. 2001). 일단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으므로, 아동기에 습득한 건전한 식습관은 일생동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다(Kim et al. 2013; Hong et al. 2015). 특히 자녀의 식습관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어머니의 체형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직업 유무, 어머니의 이유식 태도, 유아의 출생순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YH 2005; Lee & Kim 2006). 성장과 발육이 진행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기부터 바른 식생활 행동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Lee & Lee 2005), 아동의 불균형적인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양 지식의 전달이 아닌 실제 식생활에 영양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며(Suh & Kim 1998), 가정에서 학부모와 함께 자녀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올바른 정착과 그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식행동 및 식습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과 한국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식 기호도 비

교 및 자녀의 식습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한국 식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들의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기간

경상남도에 7개 시군에 위치한 결혼이주여성이 속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0월 다문화가정 자녀 10명, 일반가정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설문지를 보완 및 수정하여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다문화가정 자녀 설문지 99부, 일반가정 자녀 설문지 37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윤리보호를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와 결과는 본 연구에만 사용할 것을 설명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식습관 및 음식기호도 조사의 3개 영역으로 Kim SH(2011), Lee & Lee(2005)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 다문화 담당교사 및 영양교사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학생들은 자기기입법으로 응답하였고, 설문내용 중 학생의 신장, 체중, 부모의 월수입 등은 담당교사의 협조를 받았다.

1)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파악하고자 학생의 성별, 학년, 신장과 체중, 부모님에 대한 일반사항(연령, 교육 정도, 직업)과 가족의 월수입, 어머니의 출신 국가 및 한국 거주기간, 어머니의 하루 식사 횟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비만 판정 지수는 학생의 신장, 체중을 바탕으로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체질량지수가 소아청소년표준성장도표(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의 85퍼센타일 미만이면 정상, 85 이상 95퍼센타일 미만 혹은 체질량지수 25 미만이면 과체중, 95퍼센타일 혹은 체질량지수 25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2) 식습관

식습관조사를 위해 천천히 먹기, 식사의 규칙성, 손씻기, 배불러도 먹기, 낯선 음식에 대한 태도, 녹황색 채소 섭취, 과

일 및 과일주스 섭취, 편식습관, 탄산음료의 섭취 정도, 아침 식사의 규칙성 등 2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다. 식사 중 TV 시청 및 독서, 야식횟수, 탄산음료 먹기, 지방풍부식품 먹기, 가공식품 먹기 등 부정적인 식습관에는 역코딩하였다. 식습관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782였다. 편식이유, 김치횟수 및 안 먹는 이유, 아침식사 결식 이유, 아침식사의 종류, 외식횟수 등은 구조화된 질문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야식의 종류는 다중응답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3) 음식 기호도

음식 기호도 조사는 Kim SH(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기호도의 종류를 우리나라 음식으로 구성하였다. 기호도 조사에 사용한 음식으로는 밥류(6종), 일품식류(4종), 떡류(2종), 국류(4종), 죽류(3종), 찌개류(4종), 찜류(2종), 조림류(5종), 구이류(1종), 전류(2종), 볶음류(4종), 나물 및 생채류(6종), 김치류(4종), 후식류(2종), 장아찌(2종), 면류(4종)로 총 5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좋아함' 5점부터 '매우 싫어함' 1점으로 하여 점수화하였다. 음식 기호도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0.969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를 위해 설문된 설문지의 통계처리는 SPSS 20.0을 이용하였고, 변수 간 각 항목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다문화 및 일반가정의 일반 현황은 집단별 빈도분석 후 정리하였으며, 각 집단별 부모의 학력, 연령 및 가계수입이 자녀의 식습관 항목과의 상관성을 알기 위해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 음식기호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 분석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 < 0.05$ 이하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5$). 다문화가정의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 어업 31명(32.0%), 생산직, 단순노동직 26명(26.8%)의 순이었고, 일반가정의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74명(20.1%), 서비스업 61명(16.5%), 농업, 어업 54명(14.6%)의 순이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28명(28.3%), 농업, 어업 21명(21.2%), 생산직, 단순 노동직 15명(15.2%)의 순이었고, 일반가정 어머

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86명(23.2%), 서비스업 83명(22.4%), 기타 68명(18.4%), 일반사무직 59명(15.9%)의 순이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5$).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가 다문화가정의 경우 26.8%, 일반가정의 경우 49.8%였다.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가 다문화가정의 경우 39.2%, 일반가정의 경우 45.0%였다. 소득수준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150~200만 원 구간이 25.3%로 비율이 높으나, 일반가정의 경우 300만 원 이상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필리핀이 35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국 27명(27.3%), 일본 23명(23.2%), 태국 7명(7.1%), 베트남 6명(6.1%), 기타 1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 거주 기간을 묻는 문항에서는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이 58명(58.6%),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29명(29.3%), 10년 미만 6명(6.1%), 20년 이상 6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가정의 직업의 종류, 교육수준, 가족 수입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일반가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대구 등 타 지역의 연구결과(Kim & Lee 2009; So & Han 2012)와 유사한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 비해 본 연구 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본 연구대상지역이 경남의 농촌 및 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로 분석된다. 아버지의 직업도 일반가정에 비해 단순노동직,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주 여성이 많은 것과 일치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

조사대상자의 신체사항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방법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체질량지수로 비만을 판정하였을 때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학생, 두 집단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자녀를 체질량지수를 이용한 비만판정 결과, 정상범위에 속하는 경우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89.9%, 일반가정 자녀가 90.2%로 나타났다. 이는 2013 국민건강통계(2015)에 나타난 6~11세 어린이의 83.7%보다 높았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 모두 과체중은 8.0%, 7.4%였고, 비만은 2.0%, 2.4%였다. 과체중이 10.2%, 비만이 6.1%인 국민건강통계와 비교하면 본 조사대상 어린이들의 비만 정도는 낮았다.

3.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 비교

Table 3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의 식습관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20항목 중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for investigation

	Variable	Group		χ^2 -test (<i>p</i> -value)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Sex	Male	49(49.5) ¹⁾	177(47.1)	0.184 (0.668)
	Female	50(50.5)	199(52.9)	
Father's job	Simple labor	26(26.8)	44(11.9)	42.373 (<0.001)
	Farmer, fisherman	31(32.0)	54(14.6)	
	Office man	10(10.3)	74(20.1)	
	Services	6(6.2)	61(16.5)	
	Professional	2(2.1)	33(8.9)	
	Unemployed	0(0.0)	7(1.9)	
	Self-employment	8(8.2)	50(13.6)	
	Others	14(14.4)	46(12.5)	
Mother's job	Simple labor	15(15.2)	12(3.2)	45.827 (<0.001)
	Farmer, fisherman	21(21.2)	32(8.6)	
	Office man	4(4.0)	59(15.9)	
	Services	13(13.1)	83(22.4)	
	Professional	3(3.0)	30(8.1)	
	Housewife	28(28.3)	86(23.2)	
	Others	15(15.2)	68(18.4)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7(17.5)	19(7.0)	20.567 (<0.001)
	High school	54(55.7)	158(43.2)	
	College	9(9.3)	57(15.6)	
	Over university	17(17.5)	125(34.2)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or less	14(13.1)	21(5.7)	10.331 (<0.001)
	High school	47(47.5)	180(49.3)	
	College	19(19.2)	51(14.0)	
	Over university	20(20.2)	113(31.0)	
Family income (Unit: 1,000 won)	Under 1,000	12(12.1)	19(5.1)	44.136 (<0.001)
	1,000~1,500	22(22.2)	44(11.7)	
	1,500~2,000	25(25.3)	52(13.8)	
	2,000~2,500	23(23.2)	66(17.6)	
	2,500~3,000	11(11.1)	64(17.0)	
	Over 3,000	6(6.1)	131(34.8)	
Mother's country of origin	Korea	0(0.0)	376(100.0)	
	Vietnam	6(6.1)	0(0.0)	
	Philippines	35(35.4)	0(0.0)	
	China	27(27.3)	0(0.0)	
	Japan	23(23.2)	0(0.0)	
	Thailand	7(7.1)	0(0.0)	
	Others	1(1.0)	0(0.0)	
Multi cultural families mother's Korea residence period	Less than ten years	6(6.1)		
	From 10 years to 15 years	58(58.6)		
	From 15 years to 20 years	29(29.3)		
	Over 20 years	6(6.1)		

¹⁾ n(%)

Table 2. The comparison of obesity from BMI (body mass index) betwe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ordinary families children

Variable	Grade	Sex	Multi 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BMI ¹⁾		Total
					Multi 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Obesity judgment ⁴⁾ criteria	Normal	Male	44(44.4) ²⁾	157(41.8)	17.89±2.17 ³⁾	18.26±2.39	18.18±2.34
		Female	45(44.5)	182(48.4)	18.55±1.95	18.23±2.10	18.29±2.07
	Over weight	Male	4(4.0)	13(3.4)	23.99±1.00	23.90±0.46	23.92±0.59
		Female	4(4.0)	15(4.0)	22.91±0.62	22.51±0.79	22.60±0.76
	Obese	Male	1(1.0)	7(1.9)	24.97±0.00	27.85±3.24	27.49±3.16
		Female	1(1.0)	2(0.5)	22.50±0.00	27.34±2.76	25.73±3.41

¹⁾ BMI = weight(kg)/height(m)²

²⁾ n(%)

³⁾ Mean±S.D.

⁴⁾ Obesity judgment

Normal : BMI < 85 percentile of the same age

Over weight : 85 percentile ≤ BMI < 95 percentile or 25 (BMI)

Obese : BMI ≥ 95 percentile or 25 (BMI)

(Percentile reference : Body growth standard values of Korean pediatrics & juveniles in 2007)

Table 3. Comparison of dietary behavior betwe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ordinary families children

Variable	Group		Total	t-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1. Overeating once in a while	4.5±0.9 ¹⁾²⁾	4.7±0.8	4.7±0.8	- 1.555 (0.121)
2. Trying to eat unfamiliar food	3.0±1.6	3.2±1.6	3.2±1.6	- 1.321 (0.187)
3. Keeping eating delicious food even though full	4.0±1.1	3.9±1.3	3.9±1.3	1.127 (0.261)
4. Doing undesirable action like watching TV or reading during the dining	3.8±1.4	3.7±1.5	3.7±1.5	0.480 (0.632)
5. Washing hands before eat	4.1±1.3	4.2±1.2	4.2±1.3	- 0.900 (0.369)
6. Eating slowly	3.4±1.6	3.7±1.5	3.6±1.5	- 1.471 (0.142)
7. Eating regularly three times a day	4.1±1.2	4.3±1.2	4.3±1.2	- 1.332 (0.183)
8. Eating one of meat, fish, egg and bean products at least twice a day	3.6±1.4	4.2±1.2	4.1±1.2	- 3.775 ^{***3)} (<0.000)
9. Eating green and yellow vegetables like carrot, spinach, sesame leaf, pimento and etc.	3.4±1.5	3.9±1.3	3.8±1.3	- 2.882* (0.005)
10. Eating food rich in animal fat like fried food, meat, cream, butter and margarine	3.8±0.9	3.7±0.9	3.8±0.9	0.890 (0.374)
11. Eating milk or dairy products (like yogurt)	3.5±1.5	3.8±1.2	3.8±1.3	- 1.946 (0.054)
12. Eating fruit or fruit-made juice without adding sugar	2.7±1.3	3.2±1.4	3.1±1.4	- 3.395** (0.001)

Table 3. Continued

Variable	Group		Total	t-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13. Eating seaweeds like brown seaweed, laver, tangle	2.9±1.3	3.1±1.2	3.1±1.2	-1.492 (0.136)
14. Eating processed food/every day	3.8±0.8	3.7±0.9	3.8±0.9	0.559 (0.577)
15. Eating salty food (like pickled foods, fermented food juiced) and MSG-included food	4.1±0.9	4.0±1.0	4.0±1.0	0.520 (0.604)
16. Eating sweet food/every day	3.2±1.2	3.2±1.1	3.2±1.1	0.169 (0.866)
17. Eating balanced diet	3.4±1.4	3.5±1.3	3.5±1.4	-0.416 (0.678)
18. Eating carbonated drink/every day	3.7±0.8	3.7±0.8	3.7±0.8	-0.276 (0.783)
19. Eating breakfast/every day	4.2±1.2	4.3±1.2	4.3±1.2	-0.389 (0.697)
20. Eating late-night meal/every day	4.3±1.5	4.8±1.5	4.7±1.5	-2.838* (0.005)

¹⁾ Mean±S.D.

²⁾ Point was gained by Likert 5 scales

³⁾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wo groups at * $p<0.05$, ** $p<0.01$, *** $p<0.001$ by t-test

의 단백질식품의 일 2회 섭취, '녹황색 채소 섭취', '과일 및 과일주스 섭취', '야식빈도' 등 4항목은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일반가정 자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p<0.05$) 좋은 식습관을 보였다.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식품의 일 2회 섭취'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3.6점, 일반가정 자녀 4.2점이었다. '녹황색 채소 섭취'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3.4점, 일반가정 자녀가 3.9점이었고, '과일 및 과일주스 섭취'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2.7점, 일반가정 자녀가 3.2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문항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일반가정 자녀가 올바른 식습관을 보여주었다.

Kim SH(2011)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녹황색 채소 섭취, 과일 및 과일주스 섭취, 고기 등의 단백질 음식 섭취의 식습관 점수가 일반가정 자녀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였다. 전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Yu 등(2007)의 연구에서 야식 섭취 습관에 대한 문항에 '저녁식사 후 자주 밤에 간식을 먹는다'고 응답한 남녀학생이 각각 32.5%, 31.4%의 결과를 보여 초등학생들의 야식 섭취 실태를 알 수 있었다. 간식횟수는 Hong 등(2015)의 서울지역 어린이가 매일 먹는 비율 24.8%에 비해 높았다.

Table 4에서는 김치, 아침식사, 외식에 관련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의 식습관을 비

교하였다. '김치 먹는 횟수'에 대한 문항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김치를 매끼 먹는다'에 다문화가정 자녀는 51.5%, 일반가정 자녀는 66.0%로 나타났다. '외식의 종류'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다문화가정 자녀는 육류(34.4%), 한정식(23.4%), 패스트푸드(15.6%)의 순서였고, 일반가정 자녀는 육류(48.2%), 양식(13.0%), 한정식(11.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문항에서는 두 그룹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아침식사 형태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86.2%가 '밥, 국, 반찬으로 된 식사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가정 자녀의 83.4%보다 높았다. So & Han(2012)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한식 먹는 비율이 일반 가정의 한식 먹는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이 결혼 이민 전 식생활이 붕괴되고, 새로운 한국형 식생활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식생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식횟수는 월 1~2회(35.4%), 거의 안한다(35.4%), 주 1~2회(19.2%)로 나타났다. Lee & Lee(2005)의 연구에서는 외식을 하는 횟수를 묻는 문항에서 거의하지 않는다(38.7%), 한 달에 1~2번(33.7%)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Table 4. Comparison of eating habits betwe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ordinary families children

Variable	Group		χ^2 -test (p-value)	
	Multi- 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The reason of unbalance diet	Have no taste	35(53.8) ¹⁾	140(54.7)	2.057 (0.957)
	No experience to taste	6(9.2)	20(7.8)	
	For the shap and smell	9(13.8)	42(16.4)	
	For allergy	0(0.0)	2(0.8)	
	Not eating habitually	9(13.8)	26(10.2)	
	Hate cooking ways	1(1.5)	2(0.8)	
	For suffering from indigestion after eating that food	3(4.6)	16(6.3)	
	A poor digestion	2(3.1)	8(3.1)	
Frequency of kimchi eating per day	Everyday	51(51.5)	248(66.0)	8.309* ²⁾ (0.040)
	Twice a day	25(25.3)	66(17.6)	
	Once a day	14(14.1)	45(12.0)	
	Not	9(9.1)	17(4.5)	
The reason of kimchi dislike	Too spicy	27(56.3)	43(33.9)	10.562 (0.061)
	Too salty	4(8.3)	16(12.6)	
	For the smell	5(10.4)	26(20.5)	
	For the shape and color	1(2.1)	15(11.8)	
	For the feeling of chewing	6(12.5)	15(11.8)	
	Others	5(10.4)	12(9.4)	
The reason of skipping breakfast	A poor appetite in the morning	11(27.5)	25(18.4)	8.260 (0.408)
	Time not enough to have breakfast	19(47.5)	70(51.5)	
	To control weight	0(0.0)	3(2.2)	
	Not prepared	1(2.5)	10(7.4)	
	Bothersome to eat	4(10.0)	11(8.1)	
	A poor digestion	1(2.5)	5(3.7)	
	Not eating habitually	2(5.0)	3(2.2)	
	Owing to absence of preferable dishes	2(5.0)	2(1.5)	
	Others	0(0.0)	7(5.1)	
Kind of breakfast	Rice, soup & side dish	81(86.2)	302(83.4)	1.548 (0.907)
	Gruels	0(0.0)	3(0.8)	
	Bread & milk	6(6.4)	26(7.2)	
	Milk & cereal	5(5.3)	19(5.2)	
	Vegetable & fruit	0(0.0)	2(0.6)	
	Others	2(2.1)	10(2.8)	
	Frequency of snack eating per day	Over three times a day	9(9.1)	
Twice a day		32(32.3)	103(27.4)	
Once a day		47(47.5)	180(47.9)	
Not		11(11.1)	47(12.5)	

Table 4. Continued

Variable	Group		χ^2 -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Kind of snack	Cookie	45(51.1) ¹⁾	140(42.6)	7.147 (0.622)
	Ramen	2(2.3)	13(4.0)	
	Fried dish	2(2.3)	12(3.6)	
	Milk & milk products	14(15.9)	41(12.5)	
	Fruit & fruit juice	9(10.2)	53(16.1)	
	Carbonated beverage	0(0.0)	5(1.5)	
	Ice-cream	2(2.3)	12(3.6)	
	Candy & chocolate	6(6.8)	16(4.9)	
	Bread	5(5.7)	19(5.8)	
	Others	3(3.4)	18(5.5)	
	Frequency of dining out	Over 6 times/week	1(1.0)	
3~5 times/week		9(9.1)	29(7.7)	
1~2 times/week		19(19.2)	85(22.6)	
1~2 times/month		35(35.4)	127(33.8)	
Not		35(35.4)	129(34.3)	
Kind of food for dining out	Korean food	15(23.4)	28(11.3)	16.772 ^{*2)} (0.033)
	Japanese food	1(1.6)	9(3.6)	
	Western food	6(9.4)	32(13.0)	
	Chinese food	9(14.1)	25(10.1)	
	Fast food	10(15.6)	20(8.1)	
	Meat	22(34.4)	119(48.2)	
	Noodles	1(1.6)	10(4.0)	
	Flour-based foods	0(0.0)	4(1.6)	
	Mother's country food	0(0.0)	0(0.0)	

¹⁾ n(%)

²⁾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wo groups at $p < 0.05$ by χ^2 -test

‘외식의 종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육고기(34.4%), 한정식(23.4%), 패스트푸드(15.6%), 중식(14.1%), 양식(9.4%), 면류(1.6%), 일식(1.6%)의 순으로 답하였고, 일반가정 자녀는 육고기(48.2%), 양식(13.0%), 한정식(11.3%), 중식(10.1%), 패스트푸드(8.1%), 면류(4.0%), 일식(3.6%), 분식류(1.6%)라고 답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5$).

두 그룹 간 외식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났지만, 육고기를 선호하고 있었다. 외식은 가계소득수준, 교육 정도, 식생활관리자의 취업 여부 등과 관련이 있다(Park 등 1997; Chung ES 2004; Park JS 2010). Chung 등(2008)의 연구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갈비 등의 육고기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식메뉴의 선택은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양식의

선택이 많았다는 Chung ES(2004)의 연구와 일치하여 일반가정에서는 육류 다음 2순위 메뉴가 양식인 반면, 다문화가정에서는 5순위 메뉴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의 나라의 음식으로 답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아침식사 및 외식메뉴에 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본인의 입맛이 자녀 혹은 가족에게 전해지기보다는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의 기호 혹은 식습관에 의해 한국형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주 식사준비자가 어머니보다는 조모 혹은 조모의 도움 하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조모의 식사준비 정도 및 가족의 식사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교육연한, 연령 및 가계의 월수입과 자녀의 식습관의 상관성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별 부모의 교육연한, 연령 및 가계의 월수입과 자녀의 식습관 20항목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 아버지의 교육연한 및 연령

아버지의 교육연한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식습관 중 ‘식사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기’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상관계수: 0.273, $p<0.01$)을 보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양의 상관을 보인 항목은 ‘식사 전 손씻기’(상관계수: 0.104, $p<0.05$), ‘과일이나 과일주스 먹기’(상관계수: 0.166,

$p<0.01$)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식습관 중 ‘아침식사하기’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상관계수: 0.295, $p<0.01$)을 보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항목은 ‘야식 먹기’(상관계수: 0.168, $p<0.01$)였다.

2) 어머니의 교육연한 및 연령

어머니의 교육연한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식습관 중 ‘식사 중 TV 시청 및 독서’는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상관계수: -0.199, $p<0.05$)을 보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항목은 ‘식사 중 TV 시청 및 독서’(상관계수: 0.127, $p<0.05$), ‘식사 전 손씻기’(상관계수:

Table 5. Pearson correlation between food habits and parents education, age, house's income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ordinary families children

Variables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Father's age		Mother's age		House's income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Multi-cultural families	Ordinary families
1. Overeating once in a while	-.058	-.004	.151	.096	.151	.065	.108	.102	.085	.045
2. Trying to eat unfamiliar food	-.019	-.073	-.145	-.077	.094	.041	.016	.045	-.110	.019
3. Keeping eating delicious food even though full	.024	.089	.021	.080	.008	-.003	.043	.076	-.100	-.025
4. Doing undesirable action like watching TV or reading during the dining	.018	.010	-.199*	.127*	.155	-.081	-.087	-.026	.093	-.009
5. Washing hands before eat	.104	.104*	.090	.131*	-.195	-.031	-.050	-.011	-.058	.099
6. Eating slowly	.273**	.079	.042	.126*	.050	-.051	-.088	.051	-.051	.030
7. Eating regularly three times a day	.176	.074	.078	.145**	-.043	.005	.033	.029	.014	.061
8. Eating one of meat, fish, egg and bean products at least twice a day	.110	.066	.131	.085	.008	-.063	.068	-.016	-.067	.000
9. Eating green and yellow vegetables like carrot, spinach, sesame leaf, pimento and etc.	.122	.119*	-.081	.127*	-.005	-.062	.016	-.016	-.012	.004
10. Eating food rich in animal fat like fried food, meat, cream, butter and margarine	-.141	.014	-.024	.111*	.072	.005	.127	-.029	-.095	-.045
11. Eating milk or dairy products (like yogurt)	-.111	.030	-.075	.008	-.055	.049	-.014	.068	.175	.026
12. Eating fruit or fruit-made juice without adding sugar	.082	.166**	-.126	.117*	-.135	-.075	-.068	.053	.003	.154**
13. Eating seaweeds like brown seaweed, laver, tangle	.000	.092	-.015	.051	.042	.045	.128	.067	-.210*	.043
14. Eating processed food/every day	.135	.087	.181	.140**	.094	.032	-.047	-.063	-.003	-.003
15. Eating salty food (like pickled foods, fermented food juiced) and MSG-included food	-.019	-.065	.028	.020	.154	.064	.065	-.030	.102	-.053
16. Eating sweet food/every day	.038	-.020	-.059	.037	.141	-.060	-.076	-.060	.028	-.038
17. Eating balanced diet	.012	.018	-.022	.058	-.006	-.050	-.017	-.032	-.130	.038
18. Eating carbonated drink/every day	-.080	.084	.043	.118*	.043	-.022	.067	.073	-.061	-.074
19. Eating breakfast/every day	-.027	.006	-.018	.055	.295**	.011	.134	.008	-.017	.032
20. Eating late-night meal/every day	-.006	-.061	.107	-.009	.128	.168**	.172	.013	.108	.012

* $p<0.05$, ** $p<0.01$

0.131, $p < 0.05$), ‘식사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먹기’(상관계수: 0.126, $p < 0.05$), ‘규칙적으로 식사하기’(상관계수: 0.145, $p < 0.01$), ‘녹황색 채소 섭취’(상관계수: 0.127, $p < 0.05$), ‘동물성지방이 풍부한 음식 먹기’(상관계수: 0.117, $p < 0.05$), ‘과일이나 과일주스 먹기’(상관계수: 0.117, $p < 0.05$), ‘가공식품 먹기’(상관계수: 0.140, $p < 0.01$), ‘탄산음료 마시기’(상관계수: 0.118, $p < 0.08$)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모두 자녀의 식습관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항목이 없었다.

3) 가계 수입

가계의 수입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녀의 식습관 중 ‘해조류 먹기’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상관계수: -0.210 , $p < 0.05$)을 보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인 항목은 ‘과일이나 과일주스 먹기’(상관계수: 0.117, $p < 0.05$)였다.

부모의 교육연한, 연령, 가계수입에 따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과의 상관을 보면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연령, 어머니의 연령, 가계수입은 자녀의 식습관에 대해 상관관계의 정도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연한의 경우 다문화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경우 항목에서만 통계적 유의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반가정의 경우 9항목의 식습관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선행연구(Jang et al. 2011; Chung et al. 2008)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여학생의 식습관과 식사에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즉, 아동의 식습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 중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식습관과 상관성이 적었다. Kim 등(2008)의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양육에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 생각된다. 유아의 양육과 관련한 선행연구(Kim & Kim 2009)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비주체적인 식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영양불량을 유도한다는 보고(Hwang 등 2010)를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주체적인 식생활의 영위는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과 올바른 식습관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음식기호도

Table 6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별 음식기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 음식 중 일품음식, 찜류, 조림류, 볶음류에 대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금치 된장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류도 대부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기호도 조사 결과, 밥류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다문화가정 자녀는 쌀밥(4.5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현미밥(3.9점), 보리밥(3.8점), 오곡밥(3.5점), 콩밥(3.1점), 팔밥(3.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자녀는 쌀밥(4.6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는 현미밥(4.1점), 보리밥(3.8점), 오곡밥(3.5점), 팔밥(3.1점), 콩밥(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품음식에 대한 기호도 조사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는 김밥(4.3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비빔밥(4.2점), 삼계탕(4.1점), 떡국(4.1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가정 자녀는 김밥(4.4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떡국(4.2점), 삼계탕(4.2점), 비빔밥(4.1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떡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모두 인절미를 가장 선호하였고, 국류 기호도에서 소고기무국의 기호도는 일반가정 자녀(4.1점)가 다문화가정 자녀(3.9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다문화가정 자녀는 미역국(4.3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콩나물국(4.0점), 소고기무국(3.9점), 시금치된장국(3.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가정 자녀는 미역국(4.2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소고기무국(4.1점), 콩나물국(4.0점), 시금치된장국(3.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찌개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김치찌개(4.3점)를 가장 선호하고, 순두부찌개(4.0점), 된장찌개(3.9점), 청국장찌개(3.1점) 순이었다. 일반가정 자녀도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하게 김치찌개(4.5점)의 기호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순두부찌개(4.2점), 된장찌개(4.2점), 청국장찌개(3.1점) 순이었다. 죽류의 경우, 다문화가정은 단팔죽(3.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야채죽(3.6점)과 호박죽(3.4점) 순이었고, 일반가정 자녀는 야채죽(3.8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호박죽(3.7점), 단팔죽(3.7점)으로 나타났다. 죽류에 대한 기호도와 호박죽의 기호도에서는 일반가정 자녀(3.7점)가 다문화가정 자녀(3.4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찜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경우, 모두 닭찜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달걀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림류에 대한 기호도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감자조림(3.9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두부조림(3.8점), 고등어조림(3.7점), 콩조림(3.3점), 연근조림(3.2점)의 순이었다. 일반가정 자녀도 다문화가정 자녀와 동일하게 감자조림(4.1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두부조림(4.0점), 고등어조림(3.8점), 콩조림(3.5점), 연근조림(3.4점)의 순이었다. 찜개류, 찜류, 조림류에 대한 기호도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류에 대한 기호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

Table 6. Comparison of Korean traditional foods preference between multi-cultural children and ordinary families children

Food category	Group		Total	t-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Rices	Cooked white rice	4.5±0.8 ¹⁾²⁾	4.6±0.7	-1.678 (0.095)
	Cooked rice with red beans	3.1±1.3	3.1±1.4	0.145 (0.884)
	Boild-rice mixed with four other cereals	3.5±1.1	3.5±1.3	0.587 (0.558)
	Cooked rice with barley	3.8±1.1	3.8±1.2	-0.164 (0.870)
	Cooked rice with beans	3.1±1.3	3.0±1.4	0.621 (0.535)
	Cooked brown rice	3.9±1.1	4.1±1.0	-1.561 (0.119)
One dish foods	Rice cake soup	4.1±1.0	4.2±1.0	-1.439 (0.151)
	<i>Bibimbap</i>	4.2±1.1	4.1±1.1	0.696 (0.487)
	<i>Kimbap</i>	4.3±0.9	4.4±0.9	-0.952 (0.341)
	Chicken soup with ginseng	4.1±1.0	4.2±1.0	-1.068 (0.286)
Rice cakes	Rice cake coated with bean flour	3.9±1.1	4.0±1.2	-1.115 (0.265)
	Rice cake coated with red bean	3.6±1.2	3.4±1.4	1.197 (0.233)
Soups	Seaweed soup	4.2±0.9	4.2±1.0	0.315 (0.753)
	Bean and sprout soup	4.0±1.1	4.0±1.1	-0.534 (0.594)
	Spinach soup with soybean paste	3.3±1.2	3.2±1.4	0.194 (0.846)
	Beef and radish soup	3.9±1.1	4.1±1.0	-2.282 ^{*3)} (0.023)
Pot stews	Kimchi stew	4.3±0.9	4.5±0.9	-1.935 (0.054)
	Soybean paste stew	3.9±1.0	4.2±1.1	-2.473 (0.014)
	Soft tofu stew	4.0±1.1	4.2±1.1	-1.323 (0.186)
	Rich soybean paste stew	3.1±1.2	3.1±1.5	-0.527 (0.599)
Porridge	Pumpkin porridge	3.4±1.4 ¹⁾	3.7±1.4	-2.111 [*] (0.035)
	Vegetable rice porridge	3.6±1.3	3.8±1.3	-1.466 (0.143)
	Red bean porridge	3.8±1.3	3.7±1.3	0.293 (0.770)

Table 6. Continued

	Food category	Group		Total	t-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Steamed foods	Stewed chicken	4.2±0.1 ¹⁾²⁾	4.4±1.0	4.4±1.0	-1.576 (0.116)
	Steamed eggs	4.2±1.0	4.3±1.0	4.3±1.0	-1.532 (0.126)
Braised foods	Bean boiled in soy sauce	3.3±1.2	3.5±1.4	3.5±1.3	-1.789 (0.076)
	Braised mackerel	3.7±1.1	3.8±1.3	3.73±1.3	-0.835 (0.405)
	Braised tofu	3.8±1.1	4.0±1.2	3.9±1.2	-1.136 (0.257)
	Soy sauce braised lotus root	3.2±1.2	3.4±1.4	3.4±1.4	-0.925 (0.356)
	Soy sauce braised potatoes	3.9±1.1	4.1±1.1	4.0±1.1	-1.650 (0.100)
Grilled foods	Grilled yellow croaker	3.8±1.2	3.8±1.3	3.8±1.3	0.187 (0.851)
Korean pancakes	Tofu pancake	3.9±1.1	3.9±1.3	3.9±1.2	0.069 (0.945)
	Ming bean pancake	3.9±1.1	3.8±1.2	3.8±1.2	0.741 (0.459)
Stir-fried foods	Stir-fried beef	4.5±0.8	4.4±0.9	4.5±0.9	0.546 (0.585)
	Stir-fried mushroom	3.6±1.3	3.5±1.4	3.5±1.4	0.876 (0.382)
	Stir-fried glass noodles and vegetables	4.1±1.0	4.3±0.1	4.2±1.0	-1.704 (0.089)
	Stir-fried anchovies	3.9±1.1	3.9±1.2	3.9±1.1	-0.169 (0.866)
Seasoned vegetables	Bean sprout	4.0±1.1	4.1±1.1	4.0±1.1	-0.614 (0.539)
	Ming sprout	3.0±1.2	3.0±1.3	3.0±1.3	-0.004 (0.997)
	Spinach	3.5±1.3	3.5±1.4	3.5±1.4	-0.369 (0.713)
	Balloon flower root salad	2.8±1.2	2.9±1.4	2.9±1.4	-0.904 (0.366)
	Green laver	3.2±1.2	3.3±1.4	3.3±1.4	-1.266 (0.207)
	Acorn jelly salad	3.6±1.3	3.8±1.3	3.8±1.3	-1.632 (0.103)
Kimchies	Napa cabbage kimchi	4.1±1.1	4.1±1.2	4.1±1.2	0.242 (0.809)
	Young radish kimchi	3.9±1.2	4.0±1.2	4.0±1.2	-0.640 (0.522)
	Cubed radish kimchi	3.9±1.2	3.9±1.3	3.9±1.3	-0.096 (0.924)
	Stuffed cucumber pickles	3.5±1.2	3.8±1.3	3.7±1.3	-1.768 (0.078)

Table 6. Continued

Food category	Group		Total	t-test (p-value)
	Multi-cultural families (n=99)	Ordinary families (n=376)		
Drinks	Sweet rice drink	4.2±1.2 ¹⁾	4.3±1.1	-0.396 (0.692)
	Persimmon punch	3.3±1.3	3.1±1.5	1.417 (0.157)
Pickled vegetables	Sesame leaves in soysauce	3.4±1.3	3.4±1.4	0.594 (0.553)
	Pickled garlies	2.7±1.3	2.9±1.5	-0.928 (0.355)
Noodles	Wheat flakes noodles	3.8±1.3	4.2±1.1	-3.071 ^{*3)} (0.002)
	Noodles in cold bean soup	3.7±1.3	3.9±1.3	-1.117 (0.265)
	Spicy noodle	4.3±1.0	4.4±1.0	-1.165 (0.245)
	Korean noodle	4.3±1.1	4.4±0.9	-1.442 (0.150)

¹⁾ Mean±S.D.

²⁾ Point was gained by Likert 5 scales

³⁾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wo groups at * $p < 0.05$ by t-test

정 자녀 모두 두부전과 빈대떡을 선호하고 있었다.

볶음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소고기 불고기(4.5점)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잡채(4.1점), 멸치볶음(3.9점), 버섯볶음(3.6점)의 순이었고, 일반가정 자녀는 소고기불고기(4.4점)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잡채(4.3점), 멸치볶음(3.9점), 버섯볶음(3.5점)의 순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와 기호도가 같았다. 나물류에 대한 기호도는 두 집단 모두 콩나물을 가장 선호하였고, 도토리묵무침, 시금치나물, 파래무침, 썬갓나물, 도라지생채 순이었다.

나물류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 모두 콩나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무생채가 가장 낮았다. 김치류에 대한 기호도는 두 집단 모두 배추김치를 가장 선호하였고, 열무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순이었다. 음료류는 두 집단 모두 식혜에 대한 기호도는 높고, 수정과에 대한 기호도는 낮았다. 장아찌류에 대한 기호도는 대부분 낮았다. 깻잎장아찌보다 마늘장아찌의 기호도가 더 낮았다.

면류에서는 수제비에 대한 기호도는 일반가정 자녀(4.2점)가 다문화가정 자녀(3.8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음을 보였다 ($p < 0.05$). 콩국수, 비빔국수, 물국수에서도 일반가정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두 집단 간의 음식 기호도 비교에서 유의적 차이는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일반가정 자녀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

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음식 기호도 조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소고기무국, 호박죽, 수제비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자녀의 기호도가 높았던 것은 주로 볶음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나라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어서 웍(wok) 요리가 발달한 이유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음식의 기호도는 초등학생 고학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Chang & Ahn 2004; Kim 등 2013; Koo & Lee 2000; Lee & Lee 2005)와 같이 쌀밥의 선호도가 높고, 팔밥, 콩밥, 잡곡밥의 선호도가 떨어졌다. 일품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높았고, 특히 김밥의 기호도가 높았다. 채소를 주재료로 한 나물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요약 및 결론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식행동 및 식습관,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기호도를 비교 연구하여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경상남도 7개 시군에 위치한 결혼이주여성인속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부모의 직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

정 자녀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다문화가정 아버지의 직업은 농·어업 32.0%, 일반가정은 일반사무직 20.1%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28.3%, 농업·어업 21.2%로 종사하고 있었고, 일반가정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 23.2%, 서비스업 22.4%의 형태였다.

2.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가 다문화가정의 경우 26.8%, 일반가정의 경우 49.8%였다.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가 다문화가정의 경우 39.2%, 일반가정의 경우 45.0%였다. 소득수준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150-200만 원 구간, 일반가정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3. 신체계측 결과, 조사대상자의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판정 결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자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식습관 비교에서 단백질 식품 섭취, 녹황색 채소 섭취, 과일 및 과일주스 섭취, 야식 섭취의 문항들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일반가정 자녀가 더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김치 먹는 횟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일반가정 자녀가 김치를 매끼 챙겨먹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0.05$), ‘외식의 종류’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육고기(34.4%), 한정식(23.4%), 패스트푸드(15.6%)의 순으로 답하였고, 일반가정 자녀는 육고기(48.2%), 양식(13.0%), 한정식(11.3%), 중식(10.1%)라고 답하여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5. 자녀의 식습관 항목과 부모의 연령, 교육 정도 및 월수입과의 상관성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자녀의 식습관에 1항목과 관련이 있었으나, 일반가정은 이와 반대로 어머니 요인과 자녀의 식습관 9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6. 우리나라 음식기호도 조사에서 소고기무국, 호박죽, 수제비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일반가정 자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 및 음식기호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식습관 형태와 부모의 연령, 교육 정도 및 월수입과 상관성을 살펴보았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제언을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처음 보는 음식에 대한 먹기 시도, 과일, 과일주스 섭취 및 해조류 섭취 등 올바른 식행동 및 식습관에 대한 집중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머니 대상의 교육자료 개발

시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녀의 식습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음도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영양학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조모의 식사 준비 유무에 대한 조사,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적절한 분포로 나누어 나라별 특성을 고려한 조사, 연구대상자에 대한 24시간 회상법을 통한 식이섭취 조사를 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식생활을 다문화의 날, 다른 나라 음식 체험하기 등의 학교행사를 통해 긍정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Asano K, Yoon JH, Ryu SH. 2014.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ietary life after immigration to Korea: Comparison between Han-Chinese and Korean-Chinese.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9:317-327
- Cha MS, Bu SY, Kim EJ, Kim MH, Choi MK. 2012. Study of dietary attitudes and diet management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ccording to residence period. *J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8:297-307
- Cho YA. 2010. A study on evaluation of food behavior and nutritional risk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in Korea. MS Dissertation, KyungHee Univ. Seoul
- Chung ES. 2004. The effect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food expenditure pattern of urban household. *Nonghyup Monthly Report* 557:1-18
- Chung H, Eum YH, Kim JY. 2008. A study on the children's eating habits and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their parents' economic status (I) - Seoul & Gyeonggi (Incheon) area -. *Korean J Nutr* 41:77-88
- Han YH, Shin WS, Kim JN. 2011.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identity of migrants: Influential factor on Korean dietary life and eating behaviour of female marriage migrants. *Comparative Korean Studies* 19:115-160
- Hong SH, Lee BR, Park YS. 2015. A study on the dietary habits and intake of snacks and self-purchasing snack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Nutr* 28:47-59
- Hwang JY, Lee H, Ko A, Han CJ, Chung CW, Chang N. 2014.

- Dietary changes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The KoGES follow-up study. *Nutr Res Pract* 8:319-326
- Hwang JY, Lee SE, Kim SH, Chung HW, Kim WY. 2010. Psychological distress is associated with inadequate dietary intake in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s women in Korea. *J Am Diet Assn* 110:779-785
- Jang HB, Park JY, Lee HJ, Kang JH, Park KH, Song J. 2011.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level, overweight, and eating habits with diet quality in Korean sixth grade school children. *Korean J Nutr* 44:416-427
- Jung YH. 2005. The influence of mother's food habit, food ideology, and perception of body image in preschool children's nutrient intake. PhD Dissertation, Keimyung Univ. Daegu
- Kim JM, Lee NH. 2009.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of immigrant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Daegu area. *J Korean Diet Assn* 15:405-418
- Kim MH, Yoon SY, Kim MY. 2013. Survey on the eating habit and food preference of lower and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Daejeon area-. *Korean J Food Nutr* 26:952-966
- Kim MK, Kim KE. 2009.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attitud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119-137
- Kim SH, Kim WY, Lyu JE, Chung HW, Hwang JY. 2009. Dietary intakes and eating behaviors of Vietnamese female immigrants to Korea through marriage and Korean spouses and correlations of their diet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4:22-30
- Kim SH. 2011. A Nutrition Survey on upper-grade elementary student by dietitian's working type. MS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 Jinju
- Kim YO, Lim JS, Jung SN. 2008. A comparison on multicultural mothers' rearing attitudes according to personal variables. *J Korea Open Assn Early Childhood Education* 13:143-164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Body growth standard values of Korean pediatrics & juveniles in 2007. Seoul. pp.70-89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The statics of marriage immigrants. Available from <http://www.immigration.go.kr> [cited 2013 september 21]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2. The stat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child.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cited 2015 April 29]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 2013 Korean Heal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cited 2015 October 14]
-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 2015 You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cited 2015 June 28]
- Ku PJ, Lee KA. 2000. A survey on dietary habit and nutritional knowledg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utritional education. *Korean J Dietary Culture* 15:201-213
- Lee HN, Lee SS. 2005. A study on food habit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 Focused in Chonnam province. *J Prac Arts Edu* 18:61-78
- Lee JH, Kim CI. 2006. Effects of mother's weaning attitudes on their children's food habits and development.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1:251-261
- Lee JS. 2012. The factors for Korean dietary life adaptation of female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Busan. *J Korean Soc Food Science and Nutrition* 41:807-815
- Lyu JE. 2008. Dietary characteristics of Vietnam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M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 Seoul
- Mo SM, Ku JO, Park YJ, Park YS, Son SM, Seo JS. 2001. Community Nutrition. p129. Kyomunsa
- Park HR, Lee KY, Ryu JS. 1997. Analysis of food consumption patterns by income levels using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 J Community Nutrition* 2:633-646
- Park JS. 2010. A study on the income elasticity of eat-out demand. *J Foodservice Management Soc Korea* 13:59-77
- So JS, Han SN. 2012. Diet-related behaviors, perception and food prefer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with Vietnamese wive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7:589-602
- Suh EN, Kim CK. 1998. Analysis of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based up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in inner Seoul-.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31:787-798
- Yu OK, Park SH, Cha YS. 2007. Eating habits, eating behaviors and nutrition knowledge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Jeonju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22:665-672

Received 2 November, 2015
 Revised 16 November, 2015
 Accepted 2 December, 2015